

주안예교회

News InChrist

주.안.예.교.회.뉴.스.레.터.



05
May 2022
Vol.10 No.05

통권 93호

- 영카플 수련회
- 주안예훈련 & 소감문
- EM / 교우 소식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f](#) [ig](#)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cccla.org



이방걸 시무장로의 천국환송예배가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5월 28일 주안예교회 교회장으로 드러졌다. <김다슬 기자>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 故 이방걸 장로 천국환송예배

슬픔과 기쁨, 눈물과 감사가 가득한 환송의 자리였다. 이방걸 장로님의 천국환송예배가 5월28일 주안예교회장으로 벨리채플에서 있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이 세상을 소풍 나온 아이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돌아갈 아름다운 집이 있다면, 거기에 반겨줄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면... 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인생인가.

장례식은 슬프다. 천국환송예배도 마음이 무거울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고 이방걸 장로님을 보내는 예배는 슬프지만 기뻛고, 눈물을 흘렸지만 감사가 컸다.

주안예교회 시작부터 만 9년간 멕시코 선교, 힐링캠프, 주안예운동회 등 교회의 크고 작은 수많은 사역을 앞장 서 이끄시던 장로님의 모습을 추모영상을 통해 보면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장로님과 함께 신앙생활 있게 해 주셨던 하나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다. | 조용대 기자 | <4면에 계속 · 추모사 관계기사 5면>



■ VBS '하나님을 배워요!'

지난 5월 15일과 22일에는 벨리채플에서 교육부 주관으로 VBS 펀드레이징 행사가 있었다. 팬데믹으로 인해 VBS를 줌으로 진행했던 이래 2년 만에 있는 행사인 만큼 성도님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셔서 온 교회가 VBS 준비로 하나가 되었다. 특별히 ICY 유스들과 EM 봉사자들이 매 주말마다 데코 준비를 하고 랫슨 준비를 하며 VBS를 통해 아이들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2022년 VBS의 주제는 "MONUMENTAL"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배울 예정이다.

일정은 OC채플은 6월 12일(주일) 오후 1시~4시, 13일(월)과 14일(화)은 오후 6:30~8:30이며, 벨리채플은 6월 17일(금) 오후 6:30~9시, 18일(토) 오전 10:30~오후 3시, 19일(주일) 오전 10:30~오후 12:30까지 모인다. 타교회 아이들도 참여 가능하다.

| 류명수 기자 |

하나님을 향하는 부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 영커플 수련회

영커플 수련회를 지난 4월 30일과 5월 1일 양일간 Oxnard 에 있는 Residence Inn 에서 가졌습니다. 이제 막 결혼을 한 부부를 비롯해서, 어린 자녀들을 둔 부부까지 20명 가까운 커플이 참석하여, 결혼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깨달으며, 비슷한 환경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교제하며 격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번 세미나를 가졌던 장소인 Oxnard Residence Inn에서 토요일 아침 9시30분 부터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샌디에고에 거주하는 부부, OC 채플 인근에 거주하는 부부들은 토요일 이른 시간에 어린 자녀들과 함께 먼 거리를 운전하며 올라왔지만, 모든 부부들의 얼굴에서 피곤함이 아닌 기쁨과 설렘, 기대가 가득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육아에 지친 젊은 부부들을 위해, 세미나 일정 동안 어린 자녀들을 요계벳으로 섬기는 분들에게 맡기고, 온전히 수련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 되었습니다.

양태섭 안수집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두 번의 결혼 세미나를 통해, 삼각형처럼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음을 배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함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4개의 원탁에 서로 다른 목장, 다른 채플에서 온 부부가 둘러 앉아 어울려 세미나의 주제를 따라 삶과 생각을 나누는 가운데, 위로받으며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미나 시간 내내, 웃음과 기쁨과 눈물과 회개가 가득했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최혁 담임목사님께서 영커플을 위해 토요일 저녁 모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세미나 주제를 생각하며, 본인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긴다면 어떤 말씀을 남길까라는 고민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 라는 말씀을 준비

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며', 악에서 떠난 자이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골리앗을 향한 분노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가문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시편 115:11-15)이 임함을 깨달으며, 영커플 부부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가문이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면에 계속>

| 조원 집사 |

■ 졸업 축하해요

'Grow in the grace and knowledge of our Lord'



Daniel Chang



Samuel Vaughn, Joshua Cho



Hanbi Cho



Joyce Yu, Jane Lee



박민 집사

성경통독·주안에삶·새순 등 300여명 수료

■ 평사원 상반기훈련 마무리

2022년 상반기에도 주안에교회 성도들은 평신도사역훈련원에서 주관하는 여러가지 훈련에 참여하여 말씀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신년 초부터 성경 통독 훈련인 주안에말씀 18기 훈련을 1월 10일부터 시작하여 두 그룹에서 총 26명이 성경 통독을 마쳤다. 이에 따라 주안에교회가 개척된 이후 총 18차례의 주안에말씀 훈련을 통해 성경 통독을 마친 성도들의 누계가 645명이 되었다.

평사원의 모토인 “삶을 삶으로” 가져가는 말씀 훈련인 주안에삶 훈련의 경우 1월 말에 마친 21기 훈련을 통해 총 37명이 훈련을 수료했고, 지난 2월 부터 4월까지 진행된 주안에삶 22기에서는 총 22명이 훈련을 수료했다. 특별히 지난해 20기부터는 청년들의 그룹이 따로 준비되어 교회의 미래인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담임 목사님께서 신앙의 기초를 다져 주시는 주안에새순 1단계 훈련이 지난 2월 부터 5주 동안 열려 총 122명의 성도님들이 훈련을 수료했으며, 지난 4월부터 줌으로 열린 주안에씨앗 5기 훈련에서도 총 10명이 수료했다.

평사원에서는 2021년 말부터 마더와이즈 훈련 포맷을 새롭게 준비하고 인도자 훈련을 1월 말까지 마친 후, 올해 2월 부터 4월까지 11주 동안 마더와이즈 “자유” 4기 훈련을 진행했다. 교재를 통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그룹원들과 나누는 새로운 포맷의 훈련에



총 10명의 성도들이 참여했다. 이 훈련을 수료한 전정자 권사는 “말씀을 읽고 교재를 읽는 것을 관찮은데 매일 나눔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일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게 되니,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며, “이 11주의 훈련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했다. 김혜연 성도는 “아직 엄마는 아니지만 엄마가 되기를 준비하려고 훈련을 신청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이 훈련은 오히려 결혼하기 전 모든 분들이 말씀으로 준비해야 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분들이 훈련에 참여하도록 권면했다.

평사원에서는 마더와이즈 “지혜” 인도자 훈련을 6월 2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6월 7일부터는 마더와이즈 “자유” 5기 훈련을 오픈하고 등록을 받고 있다. 한편 주안에삶 23기와 주안에일꾼 4기 훈련이 6월 21일부터 시작하는 계획을 가지고 6월 5일 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 이정미 전도사 |

숲속에서 보물찾기·신나는 게임 ‘즐거운 봄소풍’

■ 주안에 한글학교

가정의 달인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주안에한글학교에서는 푸르고 눈부신 햇살아래 제1회 한글학교 봄소풍을 개최하였습니다.

드넓은 하늘과 탁트인 자연을 멀리도 아닌 바로 코앞에 두고도 그동안 특별한 계기가 없어 마주할 수 없었는데, 저마다 손에 손을 잡고 줄 맞추어 향한 주안에교회 건물 아래 아름다운 자연숲에서 아이들은 그동안 수업에 열중하느라 누릴 수 없었던 자유와 따듯한 봄햇살에 모두들 한껏 설렘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한 봄소풍은 “국민체조”부터 과자따먹기, 비누방울놀이, 초성게임 등 다양하고 신나는 놀이로 한껏 열을 올렸고, 따듯한 햇살과 바람 아래 웅기종기 모여앉아 저마다 속닥속닥 이야기꽃을 피우며 나눠 먹는 점심은 늘 바쁜 일상의 아이들에게 소소한 휴식처럼 평화로웠습니다.

봄소풍의 하이라이트 보물찾기를 통해 컵라면부터, 인형, 림보, 타올, 가방, 나무퍼즐, 헤어엑세서리 등의 풍성하고 다양한 선물들을 저마다 가슴 한가득 품고 뿌듯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장로님의 은혜로운 기도로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한 명, 한 명 천하보다 귀한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에 한국



인의 자긍심과 주님의 성품을 잘 심기우는 사랑을 모토로 늘 헌신과 사랑으로 수고하시는 한글학교 선생님들과 운영진들의 바램대로 늘 공부와 바쁜 일상의 스케줄로 그 옛날 추억 가득한 한국문화와 놀이를 경험해 볼 기회가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한 기억과 감사함의 씨앗이 잘 심기어 지길 기대하며, 무엇보다 이 시간을 아이들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한글학교 봄소풍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보태 주신 귀한 손길과 마음들에 감사를 전해드립니다.

| 이현영 집사 |



다정한 눈인사, 섬기는 곳마다 '솔선수범'

〈1면서 계속〉 최혁 담임목사님은 '아름다운 여행'이라는 말씀을 통해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살면서, 좋은 가이드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땅에 마음을 고착시키는 것들로부터 인생의 짐을 가볍게하며,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자'고 권면했다. 고 이방걸 장로님이 보여준 모습에서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고 하늘로 돌아가는 복있는 인생여행자의 삶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

추모의 글/ 이원근 안수집사

한 손엔 커다란 서류가방을 들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교회 안의 동선을 오가던 그 분께 "안녕하세요 장로님!" 인사를 드리면, 가던 걸음 멈추고 다정하게 눈웃음을 지으며 악수를 건네던 그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합니다.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늘 바쁘셨던 장로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걸 알기에 이 믿어지지 않는 현실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요 며칠간, 몇몇 분들로부터 장례일정을 묻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우리와 같이 장로님에 대한 좋은 추억만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많은 신앙의 동역자를 배출하신 당신!! 역시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이제는 무거운 가방, 그만 내려 놓으시고 그 토크 사랑했던 주님 곁에서 편안히 쉬십시오. 우리 기억하고 따르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헌신을~~ 사랑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방걸 장로님!!!



추모의 글/ 이광영 안수집사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주일 아침, 당신은 누구보다 일찍 교회에 나와 성가대원들의 의자를 나르고 젖은 의자를 수건으로 닦고 계셨죠. 그런 당신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힐링캠프 현장에서나 멕시코 선교지에서나 교회 안과 밖 어디서든지 당신과 함께 한 시간들은 언제나 참 행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이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했고, 항상 성도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스스로 섬기는 솔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현장 어디서든지 어김없이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없

다고 생각하니, 당신과 함께 했던 지난 순간순간들이 너무도 소중한음을 느낍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 곁에 없지만 당신의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했고 또 당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계속 할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며 동역자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항상 멋적은 미소를 띄우며 조용히 웃으시는 당신의 모습이 참 그립습니다. 지금도 예배당 문을 열고 환하게 웃으시며 들어올 것만 같은 당신. 주안에 모든 성도들은 그런 당신을 추억합니다. 당신으로 인해 너무나 행복했고 즐거웠고 고마웠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며...



치밀하고 차분하지만 후배들에겐 자상



〈사진 양영 Paul Yang 김다슬 기자〉

추모의 글/ 안희성 권사

“집사님, TD 다녀오셨나요? 힐링캠프 가실 수 있나요?”

“집사님, 이거 맡아 주실 수 있으세요?”

“권사님, 이거 도와 주실 수 있나요?”

“권사님, 함께 가실 거죠?” …

힐링캠프, 선교, 브릿지캠프 등의 광고가 나오는 주일이면 복도에서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시다가도 저를 보시면 어김없이 다가와 차분한 음성으로 질문을 하시는 장로님을 기억해 봅니다.

행사 때마다 장로님과 같은 팀에서 함께 봉사하며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에게 그저 순종하는 모습만으로 즐거워 하시며 한 번도 얼굴을 붉히신 적도, 불편함을 나타내신 적도, 소리를 높이신 적도 없으신 장로님을 기억해 봅니다.

저에게는… 차분하게 행사를 진행을

하시던, 꼼꼼하게 스케줄을 검토하시던, 이것 저것을 알려 주시며 믿어주시던, 아주 가끔씩 혼자만의 유머러스한 모습을 보이시던, 유난히도 이해력 권사님을 아끼시고 챙기시던, 힐링캠프에서 울고 웃으며 신명나게 천국잔치를 즐기시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던 장로님의 기억이 가득합니다.

믿음의 선배님이신 장로님께 더 배우며 깨달아야 할 것이 많은데 이렇게 장로님을 추억해야 하는 시간이 오고보니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감춰진 섭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쉽다, 서운하다 생각하지만 주안에서의 하루를 천년같이 사신 장로님이시기에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지금의 때로 결정하셔서 장로님을 부르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어진 상황을 버거워하며 뒤

쳐져 있던 제 영이 깨어나고 도전받을 을 느끼며 아직까지는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 안 계시는 그림을 그려 본 적이 없지만 이제부터는 장로님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들을 모아서 목사님과 이해력 권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더욱 열심히 주님이 주신 플랫폼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들의 대열에 서서 달려오는 믿음의 후배들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응원해 주실 장로님을 그려보며, 슬픔을 뛰어넘어 믿음의 여정 중에 장로님이 지셨던 집을 저희들이 나눠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장로님!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교회나 캠프장 어디에서든지 불쑥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실 것 같네요.

“권사님, 잘 뛰어 주실 수 있죠?…”

■ 영커플 수련회

‘섬김 받던 자리에서 이젠 섬기는 자리로’



(2면서 계속) 토요일 점심시간은 숙소 인근에 있는 American restaurant 에서 식사를 하고, Oxnard beach 에서 Refresh 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린 자녀 없이 오랜만에 부부 둘만이 가진 휴식 같은 시간이었다는 나눔들을 참석하신 많은 분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영커플 모임은 지난 1년여 전에 코비드로 인해 예배조차도 꺼려지는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목회부와 리더분들의 수고로 영커플이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격려되고, 또한 요계벳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섬김으로 어린 자녀를 맡길 수 있어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 되었습니다. 매주 있는 영커플 목장 모임에서 함께 말씀으로 교체하며,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갔던 지난 1년의 열매로 이번 수련회가 준비되었고, 영커플에게 신앙의 도전과 새로운 도약의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매주 주일에 요계벳으로 섬겨주시는 권사님과 집사님뿐 아니라 EM과 코람데오 청년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의 섬김 덕분에 모든 영커플 가족이 수련회에 집중하고 복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님에도 이틀 동안 시간과 마음을 내어 사랑으로 섬겨 주셨기에, 이번 영커플 세미나가 가능했음을 보게 됩니다. 주안예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사랑과 수고의 아름다움을 묵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랑과 섬김을 받은 영커플 가정의 말씀 안에서 더욱 성장하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기에 힘쓰는 영커플 가정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주안에 교회 영커플을 향해 계속해서 마음을 가져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 참가자들 소감

오랜만에 아기에게 집중된 삶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통해 부부관계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삼각형을 이루며 가까워져야 했는데, 저의 마음이 아기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기에게 분이 되는 부모의 모습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고, 내 마음을 아기로 인해 빼앗기지 말아야함을 배웠습니다. 그동안의 생활을 돌아보고 변화되어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한 가정으로 세우신 것에 늘 감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달려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결혼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점차 그 마음이 희미해질 즈음, 이런 세미나를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우리의 결혼을 허락하시고, 가정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배우자를 유일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길 것을 결단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서서 첫 자리를 내어드리고, 악을 미워하며 분노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살라는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부부가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설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소중한 하나뿐인 존재로써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평생 아껴줘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을 통해 다시금 서로만 바라보고 사랑하겠다 고백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더욱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 배우자 단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ICCC EM Live Sermons

EM Worship Forging Ahead

EM Live kicked off in the month of May, implementing live sermons and more opportunities for engagement from the congregation. This included time for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and corporate prayer. Katie Lee, one of our youngest EM worshippers led us in a heartfelt and moving prayer that demonstrated our love for God and ICCC. Take a read of the prayer below. May it bless you!

"Lord I thank You so much for gathering us all here today and allowing us another opportunity to be able to worship You once again. I pray that You would fill our hearts with Your love, and that we would only be focused on Your Word during this time. Would You help all of EM to grow in their walk of



faith and be able to live every day through You. I also pray that You would bless this upcoming EM Revival and that all of our hearts would be touched. I pray for our pastors and leaders. Would You bless them, strengthen them, and protect their health so that they may be able to spread the Word through Your help and strength. And would you empower the congregation to share the word as well. As P.Sam speaks today and shares the Word, I pray that our hearts would be completely changed and that we would surrender everything we have to You. I thank You so much for being such a loving and merciful God, and always showing us unending love, even when we don't deserve it. In Jesus name we pray, Amen!"

| Laura Park |

■ ICCC EM Revival

Countdown to Revival with Great Anticipation



The speaker for the Revival will be Dr. Jerry Harmon. He is the senior pastor of Grace Bible Baptist Church in Maryland and the President of Faith Theological Seminary. He delivered God's message to us a few months back and we are pleased and thankful to have him visit again. Get excited for God's word to be poured out on His people as we dive into the

book of James with Dr. Jerry Harmon in a series titled "Dynamic Faith"

Save the dates! Join our chain fast, and come out every Saturday for dawn prayer followed by ICCC EM's corporate prayer as we prepare our hearts for God's filling of His Word in us all.

| Pastor Sam Lee |

■ Class of 2022

He taught me how to trust in Him

Only to be graduating high school and looking forward to what God has in store for me in the future is so exciting but scary! But to look back on what God has already done during the four years of high school is a testimony in itself.

High school was challenging not only academically but spiritually. As classes got harder, it also became harder to prioritize God. Choosing to spend time in prayer or reading the Word over the extra hour of sleep or extra 30 minute of studying was what God challenged me for the past four years. But as He

taught me how to trust in Him with my future, the more I loved spending time with the Lord. And the more I loved spending time with Him, the more blessings He poured on to me with families, friends, and a wonderful college.

The four years has been filled with lessons that God wanted to teach me. Although I made a lot of mistakes and have fallen way too many times, the Lord has been pouring out his grace and mercy and I'm so thankful for that.

| Jane Lee |



■ 모국방문 단상/ 김승환 안수집사

"뭣이 그리 중한디?"

2022년 5월 5일~23일, 팬데믹 격리가 풀리기를 손꼽아 기다리다가 연료하신 부모님과 장모님 살아생전에 손도 잡아 드리고, 동갑내기 우리 부부의 환갑여행도 할겸 아름다운 모국산천을 찾아 나섰다.

인생이란... 우리 모두가 어떤 다리를 건너가는 시간과 여정! 이번 여행 중에 경북 안동의 낙동강 월영교를 산책하며 지나가며 느꼈던 감정이다. 정말 허겁지겁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을 잠시 멈추고



나와 내 주변을 돌이켜 보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

뭘이 그리 중한디... 늘 언제나 어디서나 진정으로 중한 것을 찾고 생각하며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정말 올바른 삶이 아닐까 하는 깨달음을 이제서야 얻는 그런 감사한 시간이었다.

행복한 추억... 절묘하게 나의 60갑자 생일 기간에 맞춰 와서 동생이 준비한 성대한 환갑잔치 여행까지 곁들여 더욱 소중하고 감사하고 또 삶의 어떤 에너지와 활력이 뽐뽐~ 생기는 그런 고마운 좋은 시간 이었다.

무거운 발걸... 철없던 어린 시절 든든한 울타리처럼 우리를 품어 주셨던 아버지 어머니 장모님의 가냘픈 모습에 나도 아내도 가슴이 미어지고 미국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그분들의 남은 날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편안하시기를 기도 드리며...

"2년반만에 열리는 라이브 무대 초대합니다!"

구자형 권사 / 벨리 유스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디렉터

제 13회 봄 정기연주회가 드디어 라이브 무대로 열린다. 팬데믹 사태로 2년 반이나 막혀 온라인으로 공연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나 6월 12일 주일 오후 7시 벨리채플 본당에서 청중들과 함께 호흡하는 콘서트를 열게 된 것이다.

구자형 권사는 "창단 후 긴 기간 동안 주안예교회의 배려로 아름다운 교회당에서 연습과 정기연주회를 갖게 되어 감사드리며 성도님의 관심과 격려를 잊지 못한다" 며 이번 연주회에도 많이 참석해 모처럼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초청의 말을 전했다.



이번에 연주할 곡목은 Bruch Violin 콘체르토, Mozart & Strauss 서곡, 차이콥스키 행진곡 & 영화 음악 등등... LA 시 12지구에 속한 오케스트라의 이번 연주회에는 지역 시의원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잔 리 시의원의 축하 인사도 있을 예정이다.

연주회 티켓은 교회 사무실에서 픽업 가능하다. 연주회와 오디션 관련 문의는 전화 (213) 458-4618 구자형 디렉터에게 하면 된다.



정경배, 정미애 집사 차남 결혼 리셉션

둘째 아들 Robert정 군이 지난달 부산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재원으로 현재 용산에서 육군대위로 근무하고 있다. 지난 5월 21일에 정경배 집사님께서 25명의 교인들과 함께 결혼 축하연이 있었다.



가정의 달 어르신들 심방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연로 하셔서 주일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가정을 심방국 봉사자들이 방문하였다. 함께 예배와 기도를 드림으로 그분들은 많은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고 한다. 주보와 교회신문, 그리고 작은 선물도 전달하였다.

| 임용자 기자 |

■ 통역국 봉사자들

“2세대 · 비한인 성도들의 귀가 되어...”



좁고 불빛도 희미한 구석방에서 최혁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동시통역을 했던 봉사자들이, 최근에 방도 넓고 좋은 장비가 설치된 곳으로 이전하였다.

지금은 Monica Kim 권사님과 Paul Yang 형제가 기쁜 마음으로 동시통역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Paul Yang (양경인) 형제는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국인과 한국어에 서툰 1.5세와 2세들에게 동시통역을 하고 있다. 더욱이 주일 오후 1:30 pm 에 시작하는 EM service

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역에서도 많은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

세 살 때 미국에 왔지만,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동시통역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목사님의 설교의 메시지와 느껴지는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려고, 신앙심이라는 기반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다고 한다. 한 사람 이라도 자신이 통역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매주일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배석원 장로님께서도 주일 새벽 일찍부터, 교회 본당 입구에 통역기와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있다.

목사님의 보석같은 하늘의 만나를 동시통역하는 사역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다. 특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교회의 주역으로서 Paul Yang 형제와 EM 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 Monica Kim 권사님 두 분에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한다.

| 임종구 집사 |

■ OC채플 소식

어린이주일 '할머니표 도시락'

봉사자들 초청 '진수성찬' 집밥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라 권사회장님께서 아이들을 위한 도시락을 준비했지요. 예쁘고 영양가 높은 도시락을 만들어 아이들과 부모님을 기쁘게 해 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보다 전도사님이 더 감동을 받으셔서 오히려 권사님들이 송구스러워 했지요.



“예쁘니?” “네” ““좋아하니?” “네” “엄마한테 매일 만들어 달라고 하렴” “우리는 주안에 한 가족. 너희를 향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다음 세대의 크리스천 리더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렴” 하는 기원과 함께 도시락 나누기를 했습니다.

5월 14일 OC채플 봉사자들을 이천기 장로님, 이정희 권사님이 댁으로 불러 주셨어요. 수고하는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초대 하셨습니다.

바쁜 일정과 선약이 있던 분들은 참석을 못 했지만, 김현권 목사님께서 갈비를 재어 오셔서 팽벌 아래서 손수 구워 주셨지요.

직접 키운 부추 해물전, 스모키 연어 야채 말이, 무 야채말이, 잡채, 문어 야채 무침, 고사리 나물. 6개월 전에 담근 동치미, 부추 김치, 갓김치, 총각김치, 포기 김치, 맛과 품위로 차려진 상에는 주안에 사랑이 가득히 담겨 있었습니다.

좌청룡 우백호를 바라보는 평상에 앉아 이야기를 푸신 장로님과 집사님들을 뵈면서 기나긴 팬데믹이 과거가 되어버린 기쁨이 있었습니다.

후식으로 나온 치즈케이크와 아이스크림이 끝인줄 알았는데, 흥삼과 대추



를 다린 정성들인 차가 나왔습니다. 이 흥삼 앵기스는 면역력을 높여주어서 예매 때마다 자리를 지켜갈 봉사자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대접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듯 보름달이 우리 앞으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주안예교회는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 되어 주의 사랑을 이루어 갑니다.

| 이에스터 기자 |

■ 주안에삶 수료 소감

'주님을 전하고 싶어요'

어렸을 때는 성경말씀이 그냥 듣는 스토리였고, 좀 커서는 맘에도 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 안된다 하는 생활지침 같은 것이었고,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고 힘든 일들을 지나면서는(물론 그것도 그때의 나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었지만) 그저 은혜와 사랑의 말씀만 찾아 위로와 평안만을 구하던 말씀이었는데 주삶을 통하여 기본적인 복음의 정리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과 계획 또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맘속에 적립하게 된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듭남과 하나님 자녀된 권세, 주님께서 날마다 더 예민하게 느끼고 깨닫게 해 주시는 죄의 문제와 회개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이제는 두려움 때문이 아닌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쁘게 그 계명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해주신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윤진영 집사

무엇보다도 요즘들어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에게 더욱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감사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회가 되면 주님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하는 것은 오랜 시간 고갈된 채 유지하던 신앙생활로 교회안에서의 교제들을 피해왔고 아무 공동체와의 교제가 없는 교회에 몇 년간 출석했던 저에게 다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다시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믿지않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마더와이즈 소감

아들과의 화목, 또다른 축복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키우지 못한 지난날 맡겨주신 자녀를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한 엄마로 마음 한구석에 자녀들에게 미안함을 가지고 있던 나. 이제는 손녀와 손자를 돌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자녀답게 키우고 싶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육십대 후반의 나이에 매일 말씀과 기도 적용 팀원들과 말씀 나눔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살다보니 가족과 만남의 횟수 손주를 돌보면서 몸은 피곤했지만 도중하차는 싫었고 배워서 손주들 만큼은 사랑을 마음껏 주어 그리스도의 자녀로 건강한 정체성을 소유한 후손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8주간 훈련이 좋은 엄마, 할머니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첫번째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지 못한 나의 불순종의 죄를 회개할 때 용서와 회복이 되어가며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일찍 천국으로 간 남편의 자리를 대신하며 살아가는 생활로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사랑과 격려에 인색했고, 아들에게 집을 지게 한 나약한 엄마였다는 것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아들과 거리가 생기는 것을 느끼면서 아들에게 서운함을 가지고 살았던 나와 아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엄마를 생각하면 미안하고 잘해야겠다 생각하면서도 마음과 행동이 다르다고 하면서 엄마한테 잘할게 하는 아들에 말에 모자간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게 하신 하나님,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처럼 먼저 제가 하나님과 화목케 되는 과정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와 손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가르쳐 이땅에서 긴 인생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와 후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정자 권사

■ 주안에씨앗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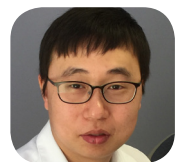
잘못된 믿음에서의 회복

회개합니다. 어릴적부터 반강제적으로 할머니 손에 이끌려 교회에 참석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믿음이 정체되어 있었던 제 모습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벌이 두려워 위선적이었던 저의 신앙의 믿음을 회개합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제가 죄가 너무 커 이 글을 쓸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기도의 순서조차, 교회의 본질조차 몰랐던 저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주안에씨앗을 통해 제가 걸어왔던 신앙생활을 돌아켜 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신앙생활을 한 이유에 대해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들과 달랐던 저의 환경과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그 고난이 힘들어 힘든 시기를 넘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제 자신을 뒤돌아 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해주실 거라

는 스스로의 잘못된 믿음과 주일을 지키지 못했던 과거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먼저 제 아내를 주안에교회로 불러주셔서 예배와 여러 성경 말씀 훈련을 통해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고, 그리고 저와 아들 우찬이가 그 믿음을 분받아 성장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생각하며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돌아켜봅니다.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 무작정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성경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말씀이 교회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전홍섭 집사

■ 김한복 집사·김무순 권사

역경 속에서 빛어낸 부부사랑

우리 주안에교회는 잘 갖추어진 카페에서 목장별로 원탁에 모여앉아 식사하면서 서로 지난 한주간 동안에 안부와 함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귀한 코이오니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좋은 교회라는 자부심이 늘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가까운 테이블에서 마주치곤 하던 얼굴들이 그림기까지 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던 차에 몇 주일 전에 분당 아래층 좌측 끝에서 휠체어에 앉아 계신 김한복 집사님과 부인 김무순 권사님을 반갑게 만날 수 있었다.

카페에서 두 분의 모습을 볼 때면 항상 중절모에 정장 양복을 단정하고 깔끔하게 입으신 남편 집사님의 모습과 함께 온화하고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그림자처럼 옆에 김권사님이 앉아계시곤 했다.

쉽게 꺼내어 이야기 할 수 없는 사연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겠구나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었다.

이름도 모르는 분들에게 예의없이 가까이 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타고난 친화력으로 부인에게 다가가 백허그를 하면서 "참 귀하십니다." 격려해 드린 적이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친분이 쌓여 "어떻게 이렇게 착한 부인을 만나셨는가" "응답까지 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런 부부를 정말 오랜만에 뵈게되어 반갑기도 하면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신문에 두 분의 모습을 소개하고싶다고 조심스럽게 여쭙보았다. 당연히 권사님은 손사래를 치시며 완강히 거부하셨다. 그러나 반대로 남편 집사님은 늘 부인에게 고맙고 미안하고 빚진 마음을 누군가가 대신 표현해 주는 것에 대해 반기는 것을 알아챈 후 열심히 설득해서 결국은 허락을 받아내게 되었다.

누구나 삶 속에서 사건과 사고를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하지만 건강하던 배우자가 하루아침에 휠체어에 의지해 교회에 출석 하기까지의 사연을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는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형제 자매로 천륜을 만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서로 위로하며 격려해 주는 주안에교회 성도들이 되라 하시지 않겠는가 싶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기사를 올리게 되면서 보람된 일을 하는 듯 했다. 그런 환난과 역경을 견디며 살아오신 얼굴모습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을 만큼 곱고 평안해 보이시는 권사님이 같은 여인으로 존경심마저 우러나게 사실이다.

이 부부의 섬김과 사랑이 믿음과 신실하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이루어 질 수 있었겠는가 싶다.

| 김선희 기자 |

■ 홍영표 안수집사·홍영주 권사

30년만의 산행에서 깨달은 것

언제나 내 삶에 있어 필요하다 싶은 것이 있으면 행하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내 건강을 점검해보라며 산으로 손을 잡고 인도하신다. 그야말로 30년만의 산행이다. 미리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4월 마지막 주일 교회에서 돌아와 집에서 쉬던 중에 "내일 임권사님과 김집사님과 동네 산에 가기로 했어, 산 입구까지만 운전 좀 해줘요"라는 집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럴거면 나도 산행에 동참하겠다 선언함으로 갑자기 미국 이주 후 첫 번째 산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척추질환으로 고생한지 20년, 그리고 수술 후 10년 동안 산을 오르는 것에 대한 망설임으로 시도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나도 함께 산에 오른다는 소식을 들은 임권사 부부께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애초 3명의 산행이 5명으로 확대되었다.

다음날 아침 8시 Simi Valley에 있는 Chumash Trail



입구 주차장에 모였다. 그냥 아무 생각없이 간단한 복장으로 모자만 준비한 채 동네 산보가는 차림으로 온 나에게 같이 동행하시는 분들이 하이킹 등산스틱을 빌려주셨다. 허리수술을 받은 나를 위해 미리 준비해주신 배려임을 나는 바로 알 수 있었다. 감동이다. 그런데 이 감동은 시작일 뿐 4시간의 산행 내내, 같이 가신 분들의 초보자를 위한 배려는 산을 내려와 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쉼 없이 이어졌다. 트레일 구간에 대한 안내부터 조심해야할 부분, 중간중간 워터로의 안내 그리고 일부러 산행 속도를 늦추어 본인들의 불편함을 감수 할 뿐만 아니라 정성껏 준비해오신 여러 먹거리들을 대하곤 감동을 넘어 그저 송구스런 마음이었다.

사실, 같이 등산한 분들과는 교회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는 것 외에는 따로 이렇다 할 교제를 가질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산행은 깊은 교제를 나누기에 훌륭한 기회가 되었다. 갑작스레 이루어진 30년만의 산행은 형편없는 내 건강을 점검하라는 뜻 외에도 주안에교회를 함께 섬기는 "교회식구"와의 진정한 교제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나아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고 감사기도를 드렸다.

비록 쓰지 않던 근육들을 한꺼번에 사용함으로 무려 4일 동안 근육통으로 시달렸지만 기회를 만들어 나는 다시 산에 오를 것이다. 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연습할 수 있으며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른 교회식구를 이해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유용한 곳이기 때문에...

| 홍영표 안수집사 |

■ 음악 칼럼/ '오페라의 거인' 베르디

외로운 아버지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이탈리아의 작곡가 베르디(Giuseppe Verdi, 1813~1901)는 오페라의 거인이라 불리며 본고장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확고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음악가이다. 그의 작품은 현실을 반영하고 인간의 내면을 묘사하여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었고, 베르디는 그 인기를 바탕으로 통일 이탈리아의 초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5년간 활동하기도 했다. 베르디의 오페라에는 특별함이 있는데, 바로 아버지가 주요 배역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아버지가 단순한 주변 인물로 머무는 데 그치지 않고 극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로 개입한다. 자식을 향한 애끓는 부정을 보여주기도 하고, 자식의 잘못을 깨우쳐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과 대립하며 갈등을 촉발시키기도 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목숨을 내놓기도 하는 등 다양한 면면을 보여주며 오페라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베르디의 오페라에 다양한 모습의 아버지가 나오는 이유는 그의 성장 배경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베르디는 평범한 촌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변변한 음악교육 한 번 받지 못한 그의 재능을 알아본 사람은 부유한 상인이었던 바레치였다. 그는 베르디가 음악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고, 성장하여 음악



가로서 자리매김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했다. 심지어 자신의 딸과 결혼시킬 정도로 베르디를 아꼈다. 자신을 아들처럼 챙기는 바레치에게서 베르디는 아버지 같은 애정을 느꼈다. 친부와 바레치 사이에서 서로 다른 형태의 부정을 경험했던 그는, 다양한 아버지를 작품에 등장시키며 아버지의 역할과 사랑에 대해 고민했다.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자녀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USC의 연구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아버지와 관계가 원만한 자녀들은 56%

가 아버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종교의식을 생활화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아버지와 친밀도가 약한 자녀의 수치는 36%에 그쳐 20%의 격차를 보였다. 또, 성인이 된 자녀가 교회를 떠날 지 교회와의 인연을 이어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교회 출석 여부에 달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아버지의 모습은 자녀에게 각인되어 그들의 신앙생활을 좌우하게 된다.

성경은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머리가 되어 가정을 이끄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가족 구성원들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 권위를 존중해야 하고, 그 질서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야 한다고 가르친다. 세상에 맞서 가정을 지키고, 내부적으로는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아버지는 외로운 결정의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된다. 그 외로움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가족이다. 가족의 사랑과 응원은 모든 아버지들을 쓰러지지 않는 든든한 기둥으로 바로 서게 한다. 아버지도 한 인간으로서 이해받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다. 언제나 가족을 위해 묵묵히 애쓰는 아버지에게 사랑과 감사를 담은 응원의 말을 건네보자.

| 황성남 기자 |



어버리주일 맞아 ICY, EM, 코람데오 한어청년부가 카네이션을 손수 만들어 준비했다.



'주안에' 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뉴스레터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예교회 문서사역국 /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김선희, 나형철, 류명수, 모니카 김, 이성은, 이애스더, 조용대, 황성남(기자) / 양영, 박민, Paul Yang (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